

2012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 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50만 장애인을 우롱하는 경기도는 각성하라!
아랫들 빼서 윗들 쌓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5월 합의된 내용을 뒤집는 경기도는 공개 사과하라!**

1. 안녕하십니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당사자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지난 4월부터 장애인의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차 천막농성 13일, 2차 천막농성 66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월 이미 경기도는 2012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였고, 이동권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동권에 대한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채 9월 14일 최종안이라며, 당장 천막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며 2012년 장애인복지정책안을 본 단체에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경기도에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일보 전진한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만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합의된 내용을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며 생색내기와 경기도 복지수준이 높아졌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는 더 이상 장애인의 피와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장애인 교육권·자립생활·발달성인장애·탈시설등의 예산을 빼다가 이동권에 박아 놓고, 경기도 복지수준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통과가 전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로 한보따리에 묶으면서 경기도는 윈스톱 일원화시스템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윈스톱 일원화시스템이 다른 복지예산 퍼내어 대중교통권리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절끔 뿌려놓고, 언론을 통해 발빠르게 경기도 복지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동권을 개관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장애인복지까지 바닥으로 내팽겨치면서 66일동안 장애인들이 수원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신음하고 있을때는 꼬떡도 안하더니, 9월 14일 정책안을 내밀고, 오늘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잔치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4. 경기장차연은 시군투쟁을 담보하며, 경기도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경기도와 더욱 가열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입니다.

| 경기장차연 요구안 | 5월 경기도 답변 | 9월 경기도 답변 |
|---|--|---|
| <p>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보장하라!</p> | <p>○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도 이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도 자체 추가 지원</p> | <p>○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12개 시·도에서 추가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 국비 추가급여 대상자(35천명)에게 국비 추가급여의 50% 지원 - 2012년 소요 예산 : 8,430백만원(도비 1,710, 시군비 6,720)</p> |
| <p>2. 탈시설 - 자립생활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거주인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육구 조사 실시 ▶ 탈시설자립생활 전환 시스템 구축 ▶ 체험홈 확대 ▶ 자립주택 지원 ▶ 초기정착금 지원 | <p>○ 시설 거주자 인권 실태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 등 추진</p> <p>○ IL센터 1개소당 1체험홈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p> <p>○ 2012년 초기 정착금 예산 지원 시범운영</p> | <p>○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시설거주인 실태조사 논의 중(현재까지 진행상황 없음)</p> <p>○ IL센터 1개소당 1체험홈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 -> 없음.</p> <p>○ 2012년 초기 정착금 예산 지원 시범운영 -> 없음.</p> |
| <p>3.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성인 데이 서비스 프로그램 급여 (바우처) 제공하라.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하라. | <p>○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 운영</p> <p>○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관련단체와 논의</p> | <p>○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가정 부담완화를 위해 확대 필요 - 연차별 확대 : 76개소('11)→115개소('14) 종사자 인력증원 : 3명→4명 - 2012년 소요예산 : 3,765백만원(도비 753, 시군비 3,012)</p> <p>○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지원대책 -> 없음.</p> |
| <p>4.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장애인교육을 위한 야학에 대한 실질적 예산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을 지원하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 수립하라! | <p>○ 도에서는 2011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2011. 7월 중순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p> | <p>○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지원 : 2012년 도비 소요 예산 300백만원 - 장애인야학 시행단체 10개소 선정 지원</p> <p>○ 장애인 야학 2011년 예산 -> 없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성인교육주체를 포함하여 상시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라! -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교육실태조사를 | <p>○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추후 논의</p> | |

차별없는 평등세상!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T.031-377-1145 F.031-377-1147 <http://cafe.daum.net/kg420> E-mail : gg420@hanmail.net
 공동대표 : 이형숙, 강경남, 김재형 / 집행위원장 : 서명석 / 442-84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0-4 골든프라자 404호

| | | |
|--|--|--|
| <p>즉각 실시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양질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p> | | |
| <p>5. 장애인 이동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도입 계획을 이행하라. ▶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개정하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2012년에 수립하도록 하고, 상반기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가 일정액의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7월 중순까지 대안 논의를 진행한다. ○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조사를 7월까지 경기장차연과 진행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권 : 도비지원(20%)으로 시·군 독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까지 5년간 리프트 장착 승합차량 452대 추가 확충 (금년도 38대 증차계획) · 119대(11년)→ 219대(12년)→ 319대(13년)→ 419대(14년)→ 519대(15년)→ 571대(16년) ○ 연차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100대씩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마저도 당초 시군의 차량구입계획이 있는 시군은 배제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시군만 지원하겠다. 자연발생적 추가 발생대수마저도 도의 생색내기 대수맞추기로 이상한 계산법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소요예산 : 17,140백만원 [도비 3,428(20%), 시군비 13,712(80%)] <li style="text-align: center;">->경기장차연은 매칭펀드에 대한 기본적 안에 찬성함. - 광역이동지원센터 : 이용자 연계를 위해 2013년 설치 ○ 2012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립 설치하기로 되어있던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3년으로 연기하였으며, 31개 시군의 현실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하려면 최소 250대의 차량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마치 장애인 이동권이 해결된것인양 말하고 있으며, 2012년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형숙, 강경남, 김재형

